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 <부록>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i
1.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3. 시사점	7
< 부록 >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8
【HRI 경제 통계】	19

< 요약 >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개요) 연초의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 대박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하반기에는 8.15 경축사와 인천아시안게임에의 북한 참가 기대 등의 기회요인이 있다. 이에 하반기 남북관계 모멘텀 마련을 위해 8.15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 내용이나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7월 4~18일 기간에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17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관계 전환점) 전환의 계기는 인천아시안게임과 8.15 경축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경축사에서 고위급회담과 비정치 분야 복원 등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인천아시안게임(45.3%)과 8.15 경축사(22.2%)를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로 지목했다.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는 8.15 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회담(21.8%)과 5.24 조치 해제(20.1%),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15.8%) 등의 제안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도 꼽았다.

(하반기 전망)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올해 연초의 조사결과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감소

전문가들은 '좋아질 것'(51.3%)이거나 '현 수준 유지'(43.6%)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올 3월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81.8%→51.3%)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 강조 등으로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긍정적 전망의 이유로는 북한의 가시적인 외자유치 성과 도출과 국제적 고립 탈피 등 '북한 내부의 필요성 증대'(40.0%)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기대'(31.7%)를 지적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북한은 개혁·개방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며, 추진 의지에 있어서도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수준 유지'(56.4%)나 '점차 확대'(42.7%)로 응답했으며,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도 추진 의지가 '높거나'(49.6%) '비슷하다'(45.3%)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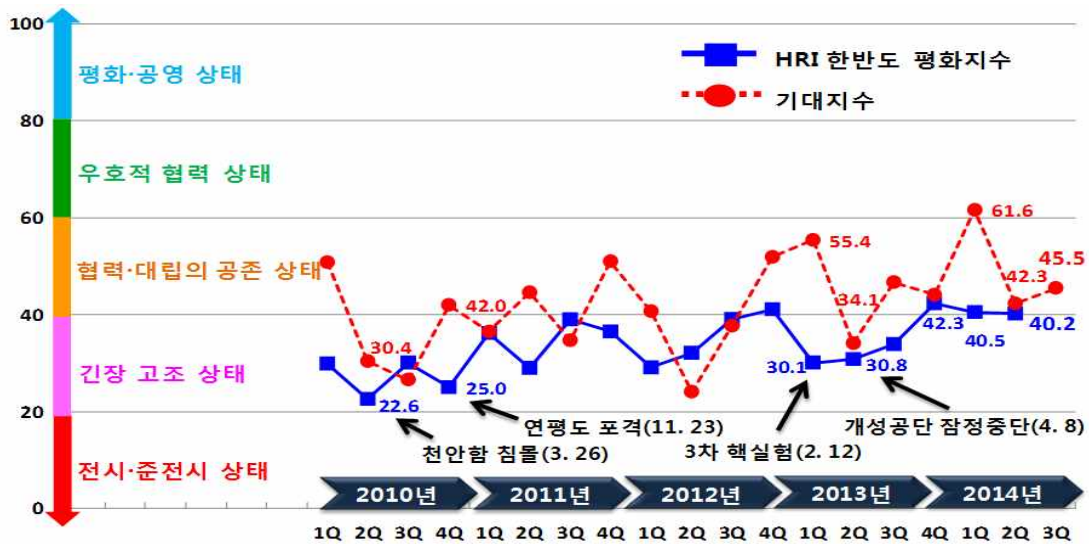
(시사점)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8.15 경축사와 인천아시안게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8.15 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 회담과 5.24조치 해제 등의 전향적 제안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성과 도출과 추진 의지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요구된다.

■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고조 상태'에 근접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4분기 기대지수는 소폭 상승세로 반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40.2를 기록함으로써 2013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긴장 공조 상태'에 근접한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한편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3.2p 소폭 상승한 45.5를 기록해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주요 특징)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는 다음 특징이 있음

첫째,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7p 소폭 상승한 33.1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감소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세로 반전해 3/4분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8.15 경축사에서의 전향적인 대북 제안과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등에 대한 기대감이 전문가들의 긍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8월말의 을지포커스가디언(UFG)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위협 발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고수 등은 관계 개선 기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를 밀돌았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속을 비롯해 우리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비난 등으로 '이벤트 지수'가 5.5p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교류지수'도 개성공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도 종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 최근 들어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모색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음

- 상반기 남북관계는 연초의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 대박 기대와는 달리,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경색 국면이 지속되었음
 -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 비난, 개성공단 국제화 협의 지연 등 남북관계 긴장 국면을 조성해왔음
 -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에 대한 대북 정책의 원칙 강조 등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하반기에는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등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존재
 - 하반기에는 8.15 경축사와 교황 방문에서의 긍정적 대북 제안, 북한의 인천아시안 게임 참가 가능성 기대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음
 -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도 전국 단위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의 성과 도출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 등의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함

○ 이에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8.15 경축사에서의 대북 제안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

- 조사 시기 : 2014년 7월 4일 ~ 18일 (15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17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① 남북 간 신뢰 회복 계기와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 (개관) 하반기 남북관계 전환점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8.15 경축사에서는 '남북 고위급회담(정상회담 포함)'과 '5.24조치 해제' 언급을 희망
- (남북관계 개선 전환 시기) 전문가들의 약 절반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단초는 9월 19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

- 인천아시안게임이 4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8.15 광복절(22.2%)이라고 응답하였음
- 전문가들이 인천아시안게임에 높게 응답한 것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대회에서의 북한 응원단 참석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특히 실무접촉(7. 17) 결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제1비서가 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과 불신의 중요한 계기'라고 한 점 등에서, 아시안게임을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소망하는 전문가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 성향은 인천아시안게임에 가장 높게 응답했고, 진보 성향은 8.15 경축사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남

	종합	성향		
		보수	중도	진보
인천아시안게임(9.19~10.4)	45.3%	57.5%	43.5%	32.3%
8.15 광복절 경축사	22.2%	10.0%	21.7%	38.7%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20.5%	17.5%	26.1%	16.1%
연말 즈음	7.7%	5.0%	8.7%	9.7%
추석(9. 8)	4.3%	10.0%	0.0%	3.2%

○ (8.15 경축사 제안)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할 경우, 정상 회담을 포함한 남북 고위급회담과 5.24 조치 해제 등의 제안에 높게 응답

-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남북경색 이전의 경제·사회 분야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을 지적
 -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회담 개최를 비롯해 5.24 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등이 전체의 57.7%를 차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 그 다음으로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9.0%)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9.0%) 등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26.3%)를, 진보 성향은 5.24조치 해제(30.6%)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합	성향		
		보수	중도	진보
남북 고위급회담(정상회담 포함) 제안	21.8%	26.3%	19.6%	19.4%
5.24 조치 해제	20.1%	12.5%	19.6%	30.6%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	15.8%	8.8%	19.6%	19.4%
금강산, 개성 관광의 재개	9.0%	7.5%	8.7%	11.3%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가뭄 지원 등)	9.0%	11.3%	9.8%	4.8%
드레스덴 구상의 이행 의지 강조	8.5%	12.5%	8.7%	3.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다자경제협력 방안 제안	7.3%	11.3%	6.5%	3.2%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3.4%	3.8%	3.3%	3.2%
남북한 체육, 문화예술 교류 확대 제안	3.0%	2.5%	4.3%	1.6%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협력 제안	1.7%	3.8%	0.0%	1.6%
기타	0.4%	0.0%	0.0%	1.6%

○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는 북한 내부의 필요성과 우리정부의 정책 변화 기대가 반영

- (전망)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하반기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연초의 조사결과보다는 부정적으로 변화
 - 연초 결과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은 급감(81.8% → 51.3%)하였고, 현재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응답 비율은 크게 증가(14.8% → 43.6%)

- 이는 연초 이산가족 상봉(2. 20~25)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 행위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 강조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2014. 3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좋아질 것이다	81.8%	51.3%	47.5%	56.5%	48.4%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14.8%	43.6%	50.0%	41.3%	38.7%
나빠질 것이다	3.4%	5.1%	2.5%	2.2%	12.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남북관계 전망,”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현안과 과제, 2014. 3. 17.

- (낙관적 전망 이유) 전문가들이 ‘좋아질 것’이란 낙관적 전망의 이유로는 북한 내부의 필요성 증대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라고 응답
 - 북한 내부 필요성(40.0%) 이유로는 가시적인 외자유치 성과 도출, 북미 관계 개선과 국제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들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기대(31.7%) 응답은 아시안게임 등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자칫 현정부 임기 내내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그 다음으로는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압박(15.0%)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남북 모두 필요하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시안게임’, ‘주변국 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 순으로 응답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북한 내부의 필요성 증대	40.0%	52.6%	34.6%	33.3%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기대	31.7%	31.6%	34.6%	26.7%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압박	15.0%	10.5%	26.9%	0.0%
기타	13.3%	5.3%	3.9%	40.0%

- (비관적 전망 이유)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6명의 응답자 모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고수 지속’으로 응답
 - 이는 우리 정부의 원칙 고수 대응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한의 대남 위협 등 외부적 요인보다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더욱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② 북한의 개혁·개방 평가

○ (북한 개혁·개방 전망)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에 긍정적 평가

-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현 수준 유지'(56.4%)와 '점차 확대'(42.7%) 등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이는 전문가들이 각종 경제관련 법·제도 개정과 대대적인 경제개발구 신설 등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의 개혁·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
 - 한편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은 '점차 확대'(51.6%)에, 보수 성향은 '현 수준 유지'(67.5%)에 더 많이 응답함으로써, 진보가 보수에 비해 다소 긍정적임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제한적 개혁·개방 등 현 수준 유지	56.4%	67.5%	52.2%	48.4%
점차 확대할 것임	42.7%	32.5%	45.7%	51.6%
오히려 축소할 것임	0.9%	0.0%	2.1%	0.0%

○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비교) 전문가들의 약 절반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응답

- 대부분의 전문가들(94.9%)이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은 적어도 김정일 체제 시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평가
 - 이는 김 제1비서가 유학생 출신의 젊은 지도자일 뿐 아니라, 이전보다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 부문의 내각 역할 강조, 경제개발구 신설 등의 실제 추진에 기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김정은 체제의 의지가 높다	49.6%	37.5%	52.2%	61.3%
두 체제가 비슷하다	45.3%	55.0%	41.3%	38.7%
김정은 체제의 의지가 낮다	5.1%	7.5%	6.5%	0.0%

③ 동북아 외교 정세 현안

○ (시진핑 방한의 남북관계 영향) 과반수의 전문가들(58.1%)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와 6자회담 재개 노력' 등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북핵 폐기' 요구를 반대하면서 종전의 대북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으로 평가
- 다만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전략대화 정례화,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방문한 것 등으로 긍정적 영향(29.9%)이 부정적 영향(12.0%)보다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종합	향후		
		보수	중도	진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58.1%	47.5%	60.9%	67.8%
남북 간 대화 확대 등 긍정적 영향	29.9%	42.5%	28.2%	16.1%
남북 갈등 확대 등 부정적 영향	12.0%	10.0%	10.9%	16.1%

○ (북일 관계 전망) 대부분의 전문가들(79.5%)은 향후 북일 관계가 '개선은 되겠지만 국교정상화까지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평가

- 이는 과거의 실패 사례와 함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주변국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남북자 문제 해결과 대북 경제재제 해제 등과는 다소 분리 진행될 것이란 분석에 근거

	종합	향후		
		보수	중도	진보
개선은 되겠지만 국교정상화까지는 어렵다	79.5%	72.5%	84.8%	80.6%
과거와 마찬가지로 크게 개선되지 않음	12.0%	22.5%	8.7%	3.2%
크게 개선되어 국교정상화에 이를 것임	8.5%	5.0%	6.5%	16.2%

3. 시사점

○ 첫째,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 전문가들의 2/3가 8.15 경축사와 인천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만큼, 지나친 원칙 고수보다는 신축적이고 유연한 대응 필요
- 특히 8.15 경축사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제안과 5.24 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의 제안을 응답한 만큼,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이 요구됨

○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성과 도출로 추진 의지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보다 높은 만큼, 북한이 지속적인 개혁·개방 확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접경지역 중심의 남·북·중 혹은 남·북·러 공동 경협 사업 추진과 함께, 개성공단과 남북관광 사업 재개를 통한 경협 방안을 모색
- 북한도 투자보장과 신변안전, 후발국으로서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글로벌 경제 수준의 법·제도화 노력과 함께, 핵문제 진전과 대남 비난 중단 등 경제 외적 불안 요인 완화를 위한 협조적 자세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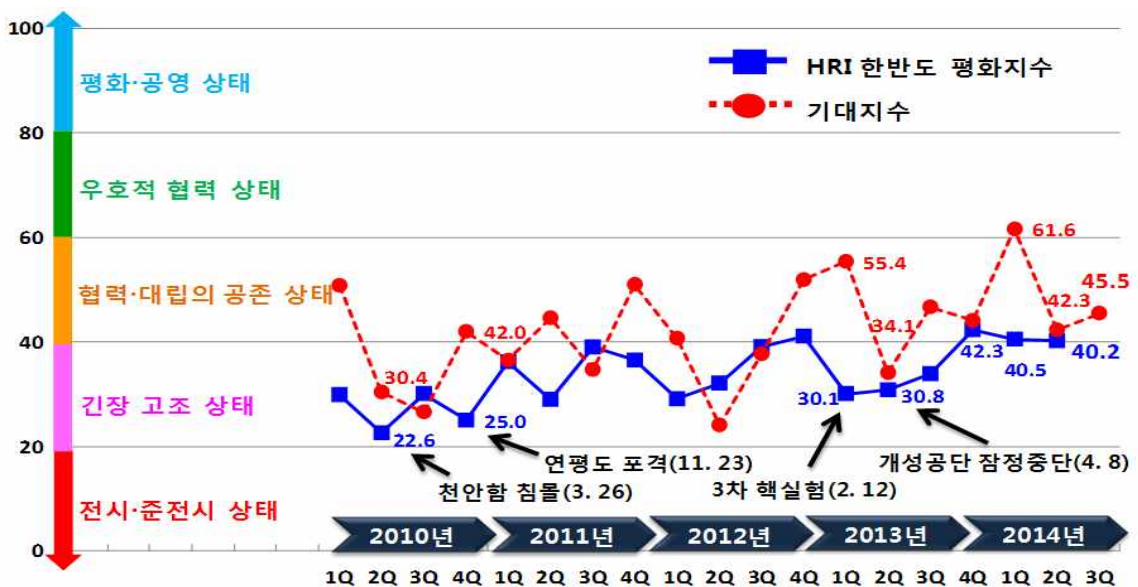
○ 셋째,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요구된다

-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 측면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
-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대남 우호적 감정을 증진시키고 평화적 통일 저변 확대에도 보탬이 될 것임

< 부록 >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 (종합)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고조 상태에 근접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4분기 기대지수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세로 반전
- (평화지수)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가 40.2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 근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평화지수는 4차 핵실험 위협으로 소폭 하락했던 1/4분기 추세가 이어짐
 - 이는 무인기 논란을 비롯해 3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우리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비난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기대지수) 전기 대비 3.2p 소폭 상승한 45.5를 기록해 전문가들의 3/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평가로 반전
 - 8.15 경축사에서의 전향적인 대북 제안과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등에 대한 기대감이 전문가들의 긍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다만,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8월말 을지포커스가디언(UFG)에 대한 군사적 대응 위협 발언 등은 3/4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의 걸림돌로 작용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는 소폭 상승,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는 객관적 실적에 비해 다소 긍정적임

(1) 전문가평가지수 (2014년 1/4분기 : 31.4 → 2/4분기 : 33.1)

- 총 117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
-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2.3p 소폭 상승한 33.1을 기록
-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 가능성 감소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2) 정량분석지수 (2014년 1/4분기 : 49.6 → 2/4분기 : 47.3)

- 2/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49.6보다 2.3p 소폭 하락한 47.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지수의 하락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 등의 지속으로 '이벤트지수'가 하락한 데 기인함

< 2010~2014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① 이벤트지수 (2014년 1/4분기 : 52.3 → 2/4분기 : 46.8)

- 이벤트지수는 무인기 논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드레스덴 구상 비난 등으로 5.5p 하락
- 다만 4차 핵실험 위협 감소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2차 현장 실사 추진, 한독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등은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평가

② 교류지수 (2014년 1/4분기 : 46.9 → 2/4분기 : 47.7)

- 교류지수는 지난 분기와 비슷한 47.7을 기록함으로써 상승세가 둔화
- 교류지수의 상승세 둔화는 개성공단이 재가동 이후에도 추가적인 남북경협 확대 조치가 없어, 종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
- 실제적으로 2/4분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1/4분기 170만 달러→2/4분기 340만 달러), 남북교역(1/4분기 5억 400만 달러→5억 2,360만 달러) 등도 소폭 상승에 그침

< 2010~2014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평가)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평가지수와 기대지수 모두 소폭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임

- 2/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2.6, 35.7, 31.5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1.5p, 4.6p, 5.2p 상승함
 - 진보 성향의 1/4분기 평가지수 상승 폭은 5.2p로, 이는 중도 성향은 물론 보수 성향의 1.5p에 비해 약 3배 이상 컸음
- 3/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44.4~46.4로 비슷하나, 상승 폭에 있어서는 중도와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높았음
 - 이는 중도와 진보 성향이 보수층에 비해 8.15 경축사에서의 대북 제안과 인천 아시안게임, 교황 방문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과 소망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평가 **HRI**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4. 2분기	32.6 (▲1.5)	45.1 (▽0.9)	35.7 (▲4.6)	46.4 (▲3.4)	31.5 (▲5.2)	44.4 (▲3.2)	33.1 (▲1.7)	40.2 (▽0.3)	45.5 (▲3.2)
'14. 1분기	31.1 (▽10.8)	46.0 (▽12.2)	31.1 (▽14.9)	43.0 (▽20.1)	26.3 (▽21.2)	41.2 (▽21.4)	31.4 (▽14.2)	40.5 (▽1.8)	42.3 (▽19.3)
'13. 4분기	41.9 (▲6.9)	58.2 (▲16.7)	46.0 (▲6.5)	63.1 (▲15.9)	47.5 (▲12.4)	62.6 (▲20.1)	45.6 (▲8.9)	42.3 (▲8.4)	61.6 (▲17.5)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33.9 (▲3.1)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30.8 (▲0.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미래연구본부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이용화 선임 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 별첨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이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별첨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 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

< 별첨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4년 7월 4일 ~ 18일 (15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17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7.1	22.7
2. 그렇지 않다	46.2	51.3
3. 보통이다	36.8	25.2
4. 그렇다	0.0	0.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7	22.7
2. 그렇지 않다	47.0	57.1
3. 보통이다	31.6	17.6
4. 그렇다	1.7	2.5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1	15.1
2. 그렇지 않다	36.8	52.1
3. 보통이다	39.3	31.9
4. 그렇다	12.8	0.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6	0.8
2. 그렇지 않다	11.1	16.8
3. 보통이다	41.0	37.8
4. 그렇다	44.4	42.9
5. 매우 그렇다	0.9	1.7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7	18.5
2. 그렇지 않다	46.2	65.1
3. 보통이다	32.5	13.4
4. 그렇다	1.7	0.0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5	7.6
2. 그렇지 않다	33.3	42.9
3. 보통이다	33.3	34.5
4. 그렇다	24.8	14.3
5. 매우 그렇다	0.0	0.8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4	16.0
2. 그렇지 않다	45.3	50.4
3. 보통이다	35.9	30.3
4. 그렇다	3.4	2.5
5. 매우 그렇다	0.0	0.8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0	2.5
2. 그렇지 않다	16.2	30.3
3. 보통이다	47.0	38.7
4. 그렇다	28.2	26.1
5. 매우 그렇다	2.6	2.5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4	2.5
2. 그렇지 않다	26.5	29.4
3. 보통이다	42.7	53.8
4. 그렇다	27.4	14.3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4	2.5
2. 그렇지 않다	28.2	26.1
3. 보통이다	44.4	42.0
4. 그렇다	23.9	29.4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0	14.3
2. 그렇지 않다	50.4	58.0
3. 보통이다	35.0	26.9
4. 그렇다	2.6	0.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3	6.7
2. 그렇지 않다	25.6	29.4
3. 보통이다	39.3	42.0
4. 그렇다	24.8	21.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9.4	10.1
2. 그렇지 않다	28.2	47.9
3. 보통이다	42.7	36.1
4. 그렇다	18.8	5.9
5. 매우 그렇다	0.9	0.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1	14.3
2. 그렇지 않다	47.0	59.7
3. 보통이다	35.0	24.4
4. 그렇다	6.0	1.7
5. 매우 그렇다	0.9	0.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8	11.8
2. 그렇지 않다	35.9	47.1
3. 보통이다	46.2	34.5
4. 그렇다	5.1	6.7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1	12.6
2. 그렇지 않다	39.3	49.6
3. 보통이다	41.0	37.0
4. 그렇다	8.5	0.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5	5.0
2. 그렇지 않다	19.7	33.6
3. 보통이다	35.9	39.5
4. 그렇다	35.0	21.8
5. 매우 그렇다	0.9	0.0
계	100.0	100.0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6	3.6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5	1.5	2.5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3	0.4	2.6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7.3	7.9	5.4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241	790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2	151	455
	수출(억 \$)	증감률(%)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1,376	1,460	5,836
		증감률(%)	(-1.3)	(0.3)	(0.7)	(2.8)	(4.7)	(2.1)	(1.7)	(3.4)	(4.3)
	수입(억 \$)	증감률(%)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1,324	1,309	5,381
		증감률(%)	(-0.9)	(-2.9)	(-2.8)	(0.3)	(2.5)	(-0.8)	(2.0)	(3.3)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1.6	1.7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7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29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